

잡지의 변천과 사회적 역할

-한국적 상황-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

1. 시점의 출발

우리에게서 잡지는 아직도 잡지미디어로서의 충분한 인식 속에 있지 않다. 인쇄미디어로서 신문·잡지·출판은 각기 독립적인 역할분담으로 개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물론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대등한 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만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신문종사자의 신분은 사회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지만 잡지와 출판은 이에 비해 그 논의의 대상에 아직도 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70년대 후반 이후 출판의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되어 출판인의 지위가 얼마쯤 상향 조정되었다는 지적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몇몇 출판발행인에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편집자의 위치가 격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잡지인 또는 잡지편집인들의 지위는 조금도 상승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잡지미디어 그 자체의 사회적 위상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이 뜻은 또한 잡지의 독립적인 가치와 역할이 인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의 잡지는 우선 그 사회적 및 미디어적 위치가 신문에 종속돼 있으며 출판과 분리돼 있다는, 상호관계의 정립조차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수용의 양상에서도 잡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논의하거나 지적할만한 양식으로 존재되어 있지 않다. 잡지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심미디어로 있는 TV와 신문의 주변에서 단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이미지로 있을 뿐이고, 따라서 잡지가 거론의 대상이 될 때에는 오직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이미지로서만 운위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학문적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미디어와 그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는 모든 대학 커리큘럼에서 잡지는 명목상 강의될 뿐이지 실질적인 독립적 미디어로써 교육되고 있지 않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잡지론 전공의 교수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상황은 이 글 제목에 주어진 논의를 본질적으로 어렵게 한다. 첫째로 사회적 위상이 분명치 않은 미디어에 대해 사회적 역할을 말한다는 것의 무리함이다. 둘째로 현존하는 양상이 오히려 우리사회가 그렇게 하도록 분담시킨 역할의 반영이므로 잡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잡지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잡지미디어의 기본적 양식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잡지양식의 변천과 그 변천의 현단계로서의 역할을 희망적으로 말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다.

2 . 잡지미디어의 양식과 사회적 위치

인간문화에 있어 잡지의 출생은 물론 모든 미디어들과 함께 정보의 전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전달이 신문미디어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잡지는 정보의 전달에 참여는 하되 그 전달의 태도는 보다 개성적이며 선택적인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초점이다.

오늘날 발전돼 있는 모든 나라에서 잡지는 기본적으로 두개의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형식과 같은 종합지적 발전이 아니라 극단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개별적 주제의 분화된 전문지로서의 발전이라는 점이다. 연령별 · 계층적 · 취미별 분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경향이나 의식의 경향에 있어서까지도 그 어느 한 측면만을 주제로 하는 것이 잡지의 발전양상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독신자의 잡지가 다시 분화되어 남자독신자의 잡지와 여자독신자의 잡지로 나오고 있다.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아파트 거주인의 아파트 난간 꽃화분 기르기만으로도 독립된 잡지가 간행되는 것이 현상이다.

「Sunset」이라는 잡지는 70년대 미국에서 성공한 대표적 잡지 중의 하나인데, 이는 서부 개척기의 생활을 회고하는 생활의식의 변화만을 주제로 하는 잡지로, 그 내용은 주로 오늘날 옛 서부와 같은 조건의 어느 황야를 어떻게 찾아가서 몇 일 동안의 옛날과 같은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안내하는 것들로 채워진다.

또 하나는 이러한 분화가 의식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서 한 잡지가 내세우는 견해가 포괄적이거나 공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쪽의 견해만을 주장하거나 대변한다는 특징이다. 성공한 세계적 잡지들은 모두 이 특징에 의해서 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정치시사 주간지 「Nation」은 미국의 보수적 정치의 견해만을 대변하고 「New Republic」은 진보적 견해만을 대변한다. 일상적 생활지로 발전한 1천 2백만 부의 「National Geographic」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인문지리적 풍물만을 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언제나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식의 태도를 명백하게 대변한다. 그래서 이 잡지에서는 공해나 굶주림이나 폭력 등의 어두운 인간의 삶은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이러한 분화가 독자에게는 보다 많은 정보를 공시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물론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이는 또 어디까지나 수용양식의 문제일 뿐이다. 여러 입장과 여러 견해를 같이 보고자 하는 독자는 그 모든 견해의 잡지를 함께 사기만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프랑스의 슈퍼마켓에서는 장보기의 마지막 단계에 여러권의 잡지를 바구니에 집어 넣는 일상적 주부들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1 회의 평균 잡지구입종수가 7종을 넘는 것이 그들의 잡지수용양식이다. 그대신 이들은 잡지의 권당 부피가 적다 여러권 사게 되는 양식을 그 나름대로 또 적절하게 균형화 한 것이다. 따라서 잡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견해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의식이나 사상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주문은 잡지의 발전형식에 오히려 반하는 요구이다. 어떤 한 견해나 입장에 더욱 충실할수록 그 잡지는 성공적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잡지의 사회적 위상이기 때문이다.

3 . 한국의 잡지형식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잡지의 발전과정은 이러한 개성적 독립적 형식을 취하지 않아 왔다. 우리의 잡지역사는 개화기 이후 크게 종합지, 문학지, 여성지, 아동지로 분류되어 그 간행을 시작했는데, 이들 모두가 그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지적 형식을 취했을 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의해 해방 이전의 모든 잡지는 독립운동적 저항의 관점에서만 다시 한번 제한적으로 종합되었다.

이 형식의 결과는 오늘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잡지에 대한 기대나 요구는 결국 「저항적·비판적인 것」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서만 인지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사회의 가장 미분화된 문화의 미발전양상을 대변한다. 우리에게 종합지 형식의 모델이 되어준 일본의 경우만해도 이미 60년 이후 잡지발전의 형식은 바뀌었다. 그들도 이제는 세분화된 항목별 잡지의 양상을 확산시켰고, 따라서 잡지란 시대의 경향과 변화에 따라 명멸하는 것이지, 오로지 장수하는 잡지만이 성공한 잡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이전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처럼 균일화 된 종합지적 발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문예춘추」나 「중앙공론」, 또는 「주부의 벗」이나 「부인공론」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같은 종합지이면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시각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잡지들은 거의 기이할 정도로 종합지적 단순화만을 지향해 왔다.

한국잡지역사를 구분할 때, 「개관」, 「신여성」, 「어린이」를 간행했던 해방 이전과, 「사상계」, 「새 벗」, 「여류」를 간행했던 60년대까지 및 그 이후를 시대적으로 분류해보려는 것이 학문적 견해이기는 하다. 그러나 잡지의 내용적 분화나 견해의 개성화라는 기준들에서 보면 한국의 잡지들은 아직도 그 출발점의 시대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오히려 근자에는 종합지, 여성지, 학생지, 주간지의 구분마저 없어져 가는 대통합적 종합지화 시대를 맞고 있다. 종합지든 여성지든 학생지든 간에 최근 우리의 잡지들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만 매달려 있다. 하나는 정치적 상황에 연계되는 폭로기사들이고, 또 하나는 외설기 짙은 연예가중심과 향락업소 소재의 기사들이다.

그리고 이 기사들은 제 5 공화국 기사들의 자유로운 집필이 시작되면서 어느 잡지든 제 5 공화국 폭로기사들로 70%씩 집중화하는 현상에 도달해있다. 때로 어느것이 여성지이고, 어느것이 종합지인지의 구분조차 불가능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게다가 주간지의 외설기사가 학생지의 외설기 기사보다 못하다는 경우까지 보게 된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단순통합화 단계에서 남학생 중학생지는 아예 그 거점마저 소멸되었다는 사실이다. 여학생 중학생지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쥬니어」 또는 「하이틴」 같은 것들이다.

잡지의 형식으로 이 현상을 냉철하게 보자면 오늘 우리의 모든 잡지들은 종합지나 여성지나 또는 학생지가 아니라 단지 「실화지」나 「황색 오락지」에 불과하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상계」, 「여원」, 「학원」, 「새 벗」, 「아리랑」 등의 잡지분류체계기준이 있었으나 오늘에는 오직 「야담과 실화」계만이 남아 있다는 강변까지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잡지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같은 것을 운위한다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먼저 논의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4 . 한국적 상황의 이해

왜 우리의 잡지가 이러한 발전과정(퇴행과정 일 수도 있다)을 거쳤는가는 기실 잡지미디어의 책임만은 아니다.

그 책임은 보다 우리사회의 미디어 수용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음 인쇄미디어를 수용할 때부터 삶의 양식의 하나로써 자연스럽게 개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형식을 받아들이면서 곧 이를 사회적 저항매체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조건이 인쇄미디어의 용법과 그 가치 자체를 변화시켰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60년대 이후에는 또 TV 미디어를 수용하게 되었으나 이 역시 문화미디어로써 보다는 체제유지홍보매체로 사용하는데 집중됐고, 홍보매체사용 이외의 부분은 대중문화의 전달매체로만 이용됐다. 뿐만 아니라 TV 라고 하는 전파미디어는 그 속성상 인쇄미디어의 국민적 수용기반을 약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결과적으로도 모든 여타미디어를 TV 미디어에 종속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은 따라서 인쇄미디어의 개성적 성숙만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인 독자의 성장까지를 저해했다. 독자의 미성숙은 인쇄미디어의 시장을 협소화했고 시장의 협소화는 또 다시 인쇄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이 와중에서 잡지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으로써 선정적인 기사로서의 종합지적 발상으로 밖에는 그 자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셈이다. 이 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잡지의 부피이다. 최근의 잡지들은 7백 페이지가 넘도록 불어나 있는데(두 손으로 들고 보기에든 어려운 부피이다) 이는 내용의 종합화만으로도 싸우기가 어려워져 양적 경쟁에까지 나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적 경쟁은 두 권 살 사람을 한 권 밖에 못 사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협소화를 촉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정치사회적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권위주의 체제의 장기간의 지속은 국민적 관심사를 정치적 체제의 소재에 집중화하는 특별한 사회의식경향을 형성시켰다.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회는 정치라는 것이 일상 속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전국민이 가장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있는 사회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것처럼 분명하게 정치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은 없다. 이 증명에 의해 미디어 역시 정치적 미디어로서만 그 존재를 인지케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정치적 과제이므로 그 관심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적 관심사가 정치적 폭로이므로 폭로기사로서만 더욱 경쟁적이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그 집중적 정치화 과정에서 우리의 평균적 문화감수성 자체가 정치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감수성편향으로부터, 또는 정치적 감수성편향을 향해 미디어의 현실적 생존방법은 그것에 종사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 진실인 것이다.

외설성향 역시 같은 논지로 이해가 가능하다. 외설성향의 급격한 증대는 지금 잡지의 경우 가장 소극적인 매체에 해당된다. 잡지보다는 만화가 더 심각하고 만화보다는 영화가 더

충격적이며 영화보다는 비디오의 포르노확산이 더 문화파괴적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최근 통계로 VTR 보급대수가 264 만대에 도달돼 있는데 이를 통해 성인 81%가 포르노비디오를 보고 있고 중학생 67%가 포르노비디오를 보았다고 대답하는 조사결과들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포르노테이프를 녹화할 수 있는 비디오 공테이프가 연간 5백만 개씩 판매되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는 성인의 18%가 단지 포르노를 녹화하기 위해 VTR 기기를 구입했다고 답하기도 한다.

이 정황에서는 포르노비디오와의 경쟁을 향해 영화의 포르노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영화의 포르노화는 자연 잡지보도의 외설화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의 분위기가 향락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측면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더 가속화된다는 논지를 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여가활용능력의 부족이고 또 하나는 사회정황의 불안정성이다.

국민적 여가활용능력의 부족은 무엇으로 여가를 보내느냐는 의식조사에서 자주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TV 보기, 술마시기, 잠자기와 약간의 음악감상이라는 것에 제한돼 있다. 이 수준에서는 포르노비디오 보기가 가장 손쉽게 여가의 시간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일 수 있다.

사회정황의 불안정성 역시 술이나 마시고, 포르노나 보자는 정상적 삶의 도피나 기피현상을 부추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여건들은 잡지 만들기에 직접적인 조건들이고 특히 팔리는 잡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외설기사라는 것이 가장 당연한 소재일 수 밖에 없어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저 단순하게 잡지의 사회적 역할을 말해야 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것이다.

5 . 보도저널리즘에서의 잡지

그러나 이러한 한국잡지의 특성적 발전과정과 오늘의 정황에 의한 잡지 생존여건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서도, 오늘의 잡지행태는 따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 첫째는 시의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의 태도이다. 많은 독자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과장된 보도, 확인하지 않은 보도들의 태도가 극히 악화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장성은 한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서까지 나타난다. 제목의 크기에 비해 그 내용의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부실성은 한 사회가 가진 정규적 미디어 그 자체에 크나큰 훼손을 주고 있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빈약한 소재들의 반복게재태도 역시 또 하나의 사회적 낭비의 문제이다.

둘째는 미디어자체의 개척적 정신의 포기이다. 비록 생존을 위해 잡지의 평균적 내용이 하향이동을 하고, 선정적 외설적 기사에 기대어 벌어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미디어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갖고 계속 존재해가야 한다는 점을 위해 얼마쯤은 자신의 역량에 합당한 기여를 하고 이를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만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미디어의 가치를 유지하는 질적기사를 견지하려는 태도가 나날이 줄고 있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옐로페이퍼로서만 전환하겠다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기실 특히 잡지에 있어서는 그것이 잡지문화가

아니라 도색문화로 전환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색문화란 어느 사회에서나 마피아 같은 집단이 하는 일이지 정상적 문화종사자들이 하는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더 난처한 것은 최근에 잡지용 폭로기사들을 신문이 전제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는 현상이다. 그 동안 잡지의 제작능력은 신문에 종속돼 있었으나 이제는 잡지의 제작능력이 신문을 앞서가는 부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물론 다행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평균적 잡지제작능력의 발전이 아니라 단지 구획되어져야 할 폭로, 외설적 소재들의 전문화 능력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으로서의 발전에서는 잡지가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진 매체일 수도 있다. 제작지면이 보다 화려할 수 있고, 또 수용자로서도 일회적 사용이 아니라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것이 잡지지면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다시 가장 심각해지는 것은 잡지야말로 의식화의 매체라는 특성이다. 개성적인 삶, 생각하는 삶, 또는 같은 삶의 양식들의 결속이 가능한 의식화의 기능으로써 잡지가 보다 좋은 삶과 보다 좋은 문화의 전파매체에 헌신하지 않고, 그 반대의 덜 좋은 삶에 헌신하게 될 때 잡지미디어의 사회적 존재는 하나의 위험일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잡지의 창간이 그 대부분 폭로와 외설성향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이 위험 의식은 더욱 가중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물론 보도저널리즘에로의 잡지의 참여가 확대되거나 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도저널리즘으로서의 잡지가 잡지의 유형이든, 한 영역이든 또는 아니든 간에, 보도저널리즘으로서의 성향을 선택한 잡지라면 보도저널리즘이 지키는 제준칙들만은 지켜야 할 것이 명백한 책임이다. 다시 말해서 TV나 신문과 함께 보도저널리즘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TV나 신문이 지키는 윤리강령이나 신념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준수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6. 잡지문화에 대한 반향과 기대

이제 여러 관점을 다시 모으면서 독립적인 문화장르로서의 잡지에 대해 그가 새롭게 정립해야 할 위상과 역할을 정리해두려 한다.

첫째, 잡지는 종합적 통합화로서 TV나 신문과 같이 행동하고자 하는 매체의 양식에서 벗어나야만 잡지 자신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성화의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개별적 개인의 문화적 삶을 도와야 한다.

둘째, 모든 잡지의 전면적 폭로, 외설적 경향화에 대해 잡지문화는 혁명적 자기개선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양태가 좀더 계속된다면 우리의 잡지문화란 단지 황색문화만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잡지문화 그 자체의 존재의미가 소멸하는 것에 다름이 없어진다.

셋째,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잡지는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잘 앞서 갈 수 있는 생활양식과 생활의식을 이끌 수 있는 매체로 자신을 정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다양화와 다원화에 기여하는 미디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잡지는 그 효용이 별로 없는 매체로 전락하거나 소멸될 수 밖에는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현재 이러한 개척적 침범이 될 수 없는 「독자의 규모」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사주지 않는데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에서도 잡지는 가장 융통성이 넓을 수 있는 매체이다. 수요가 있는 만큼 만들 수도 있고 수요가 없으면 쉽게 그 자신을 변신시킬 수도 있는 것이 잡지미디어의 특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좋은 잡지의 간행이 불가능하냐는 물음이다.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기준은 단지 잡지로 돈벌이가 안된다는 것뿐이지, 잡지가 전혀 안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비어있는 잡지의 영역은 너무나 넓다. 모두 환락가에만 모여 있으므로.

- 성균관대 국문학과
- 월간 「세대」 편집장, 주간 「독서신문」 편집부장, 서울신문 문화부장, 「예술과 비평」 주간
- 저술: 「청년문화론」 (편), 「출판과 문화환경」, 「문화촉매운동론」 외
- 현재 서울신문 논설위원